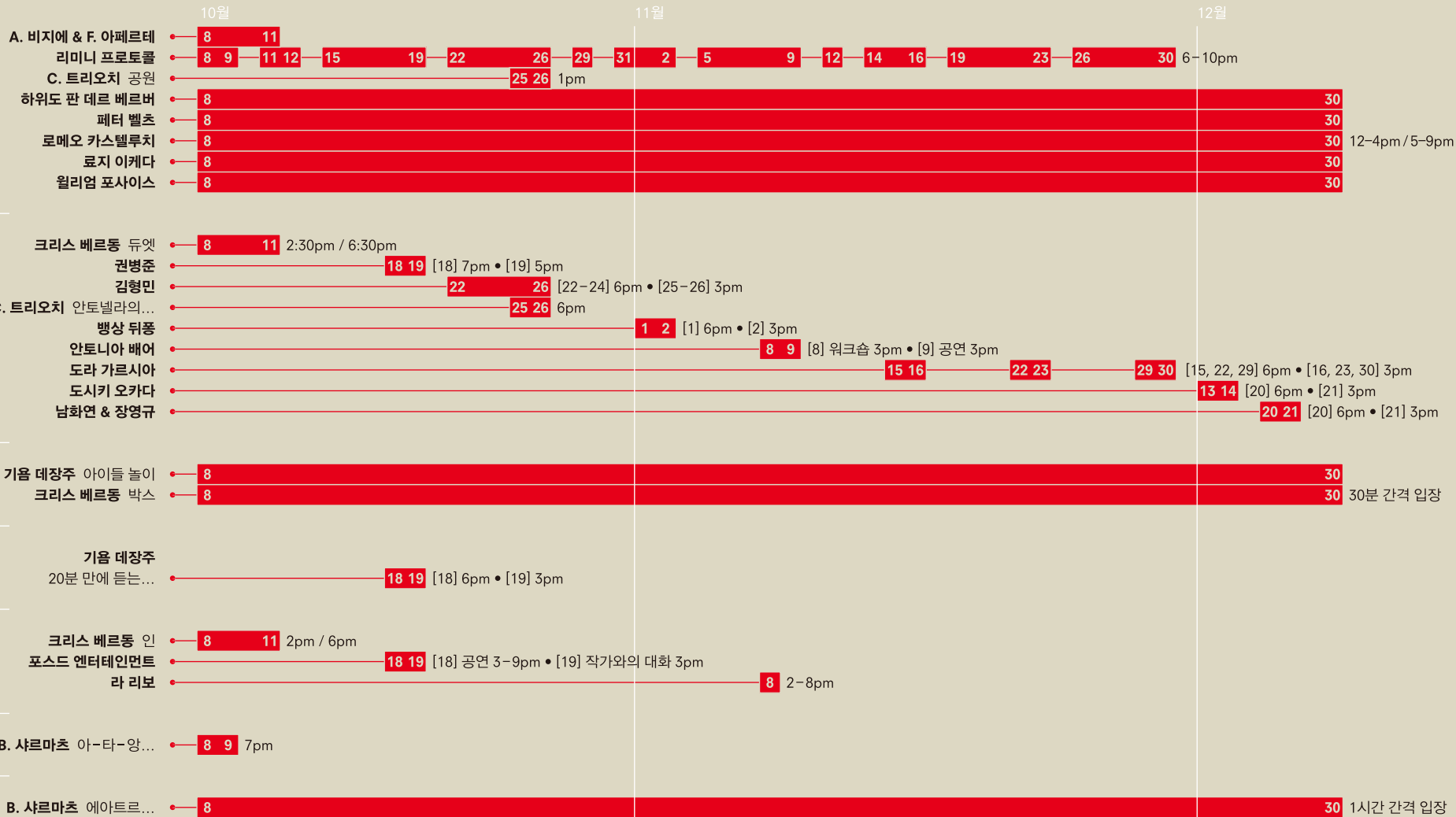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백남준페스티벌
Nam June Paik Festival
Presented by NJP Art Center

NOW
JUMP

STATION
2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백남준페스티벌
NOW JUMP

2008.10.8-2009.2.5

백남준아트센터
신갈고등학교 체육관
지엔 아트 스페이스

Nam June Paik Festival
Presented by NJP Art Center
NOW JUMP

8 Oct 2008-5 Feb 2009
NJP Art Center
Shingal High School Gymnasium
ZIEN ART SPACE

NAM JUNE PAIK FESTIVAL

NOW JUMP

백남준페스티벌

백남준아트센터는 예술과 교육,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문학의 실험적인 결합을 통해 사회 중재와 참여의 다양한 가능성을 여는 접점이 되는 공간, 아트센터와 일상세계 사이의 상호소통을 도모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개관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백남준페스티벌은 2008년 10월 8일부터 2009년 2월 5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와 센터 주변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남준페스티벌'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용인시의 지원으로 개최된다.

Nam June Paik Festival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ims to explore its role as a space that activates the interchange between the center and the outside world and where an experimental combination of art, education, technologies, and humanities is brought to impact on the diverse possibilities for social intervention and engagement. To celebrate its inauguration, the NJP Art Center presents the Nam June Paik Festival from 8 October 2008 to 5 February 2009. The Nam June Paik Festival is support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d Yongin City.

NAM JUNE PAIK FESTIVAL

NOW JUMP

NOW JUMP

백남준페스티벌의 타이틀인 NOW JUMP는 이솝
우화 중의 한 구절, “여기가 로도스 섬이다, 지금
뛰어라!”(Hic Rhodus, hic saltus!) 에서 차용한
제목으로 관념이 아니라 실행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제목은 백남준아트센터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술적
실천을 수행하고 ‘백남준페스티벌’을 통해 백남준을
넘어서는 미래의 예술로 도약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백남준페스티벌’은 백남준의 작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백남준의
창조적이고 전복적인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페스티벌은 ‘스테이션’이라는 개념하에 다섯 가지
항목으로 꾸러질 것인데, ‘스테이션(정거장)’은 기차나
버스가 멈추고 떠나는 장소인 동시에 방송국, 연구기관,
스튜디오, 지역의 중심지, 거주지, 사회적 지위 등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스테이션은 전시, 퍼포먼스,
담론 생산의 플랫폼, 백남준 예술상으로 구성된다.

NOW JUMP

NOW JUMP, the title of the Nam June Paik Festival,
originates in the sentence “Hic Rhodus, hic saltus!”
from Aesop’s fables. This title does not merely
represent a concept. Instead it is a call to action and
an appeal for innovation. This appeal embodies the
emergence of the NJP Art Center and its ambition to
leap into the future through the NJP Festival.
The NJP Art Center will ask how a renewed awe
towards Paik’s practice could generate a seditious
and subversive energy with him, about him, and in
relation to him. Organiz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Stations’ (which can encompass: a place where
trains or buses regularly stop; a broadcasting
station; a power station; a research institute; a
studio; a local headquarters; a habitat; social status
or posture) the festival will consist of five concurrent
initiatives, including exhibitions, performances,
a platform for establishing discours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JP Art Center prize.

NAM JUNE PAIK FESTIVAL

전시는 스테이션 1과 3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스테이션 1에 해당되는 전시는 백남준 및 그와 친분을 맺었던 친구들과 동료, 그리고 그와 연관 있는 여타 예술가들에 관한 기록과 그들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이 전시에는 백남준을 비롯한 조지 브레히트, 앨런 카프로 등 플럭서스 멤버들, 요셉 보이스와 존 케이지 등 백남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작가들의 작품 및 그들의 관계에 대한 기록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스케치를 담아낸다.

스테이션 3에서는 인간의 삶과 자연 및 기술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이들의 관계가 인간의 주거와 사회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양상으로 얽혀 있는지 살펴본다. 이 전시에는 생태도시 건축 설계에 평생을 바쳐온 파올로 솔레리의 프로젝트 스케치 및 조형물이 전시되며 그와 더불어 한국 건축가 조민석의 프로젝트, 빅 판 더르 폴과 헤르빅 바이저 등 해외 작가들과 잭슨 홍, Sasa[44] 등 국내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도시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드러낸다.

NOW JUMP

This festival comprises an exhibition program and a performance program that exist as three stations. For the exhibition program, specifically Station 1 and Station 3, a constellation of Nam June Paik's practice, his colleagues, friends and influences will be juxtaposed with contemporary artistic practice. Station 1 consists of archival material and works by artists such as George Brecht, Allan Kaprow, Joseph Beuys, John Cage and other fluxus members. Station 3 deals with issues of space and time in relation to human life, nature and technology. The motivation for this is to reflect how intricately related these aspects really are and how this relationship impacts on human habitation and social organization. The participants for this part range from visionary architect Paolo Soleri to Korean architect Minsuk Cho. In addition, artistic practice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such as Bik van der Pol, Jackson Hong and Sasa[44] dwell on the ability to open lines of flight from apparent reductive definitions, restrictions, and control through creativity.

STATION 2:

PERFORMANCE PROGRAM

퍼포먼스 프로그램

오늘날 이루어지는 퍼포먼스의 실천들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하다. 스테이션 2의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복잡다단한 컨템퍼러리 퍼포먼스의 영역을 탐구하고, 이를 전시 공간 속에 개재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내 보인다. 따라서 각각각색의 작품들은 그 작품이 상연되는 시간적 테두리 내에서 공존하게 된다. 전시 기간 내내 지속될 연극적인 설치물에서부터 한시적인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각 퍼포먼스의 서로 다른 시간적 틀은 전시 공간 내에서 느슨한 아상블라주(assemblage)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느슨한 아상블라주란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시간성을 내포하는 장소(durational place)가 각각의 퍼포먼스들에 의해 생산되고 또한 재생산됨에 따라, 퍼포먼스들이 반복적으로 작동하던 종래의 회로와 이 퍼포먼스들이 삽입된 지금의 회로가 교차하게 되는 일시적 지점을 의미한다.

Performance Program

The Station 2 performance program was formulated to explore the diverse set of practices that make up today's extensive territory of contemporary performance. In this program, the productions coexist only within the time frame created for them as the program inserts itself into the exhibition space. Therefore, the different time frames of each performance create a vulnerable assemblage within the exhibition space; from theatrical installations that will last for the entire period of the exhibition to temporary performances. This vulnerable assemblage means that as the specific spaces, times and durational places are produced and reproduced by each different performance, the circuits within which they habitually operate, and the ones they are now inserted into, become exposed.

STATION 2:

이와 같은 회로의 노출은, 기존 전시들의 실제적 배치에서 드러나는 고정성을 뒤흔들고, 어떻게 예술적 실천들이 전시의 작동 틀을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Station 2의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기존의 관행적인 전시기획,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현된 전시공간의 경직성에 새로운 잠재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나 역사적 배경과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작가들을 한데 엮어냄으로써, Station 2 프로그램은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서로 다른 맥락들과 전제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퍼포먼스에 대한 각기 다른 조망지점들이 보이는, 또한 각각의 퍼포먼스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프로그램은 현대 퍼포먼스의 예술적 실천들에 대한 이론적인 논점들을 다시금 평가하고, '전시 만들기(exhibition making)' 자체에 대한 새로운 가정들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ERFORMANCE PROGRAM

The ambition is for this exposure to eventually cause a disruption in the fixedness of the actualized arrangements of exhibition and remind us of how artistic practice can expand beyond its operating framework. In this way, the performance program reintroduces the notion of potentiality into the actualized exhibition space and crystallized curatorial selections.

By gathering together artists that don't share common denominators such as ideology or historical backgrounds, The NOW JUMP program recognizes that the notion of performance can appear in different contexts and from different premises. Different points on the landscape of performance are given a platform from which they can be looked at and from which they can also look at each other. In this context, it aims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assess the theoretical issues of contemporary artistic practices of performance, and also to formulate some new hypotheses about the very mechanism of exhibition making.

STATION 2:

- 14 료지 이케다
- 18 포스트 엔터테인먼트
- 22 크리스 베르동
- 26 윌리엄 포사이스
- 30 남화연 & 장영규
- 34 도라 가르시아
- 38 로메오 카스텔루치 [소시에타 라파엘로 산치오]
- 42 도시키 오키다 [첼피치]
- 46 아니 비지에, 프랑크 아페르테
[레 장 뒤테르팡]
- 50 김형민
- 54 리미니 프로토콜
[헬가르드 하우크 / 스테판 카에기 / 다니엘 베헤]
- 58 클라우디아 트리오치
- 62 권병준
- 66 하워드 판 더르 베르버
- 70 뱅상 뒤퐁
- 74 안토니아 배어
- 78 라 리보
- 82 보리스 샤르마츠 [어소시에이션 EDNA]
- 86 페터 벨츠
- 90 구동희
- 94 기욤 데장주

PERFORMANCE PROGRAM

- 14 Ryoji Ikeda
- 18 Forced Entertainment
- 22 Kris Verdonck
- 26 William Forsythe
- 30 Hwayeon Nam & Younggyu Jang
- 34 Dora Garcia
- 38 Romeo Castellucci [Societas Raffaello Sanzio]
- 42 Toshiki Okada [Chelfitsch]
- 46 Annie Vigier & Franck Apertet
[Les gens d'Uterpan]
- 50 Hyoungmin Kim
- 54 Rimini Protokoll
[Helgard Haug / Stefan Kaegi / Daniel Wetzel]
- 58 Claudia Triozzi
- 62 Byungjun Kwon
- 66 Guido van der Werve
- 70 Vincent Dupont
- 74 Antonia Baehr
- 78 La Ribot
- 82 Boris Charmatz [Association EDNA]
- 86 Peter Welz
- 90 Donghee Koo
- 94 Guillaume Désanges



RYOJI IKEDA



SPECTRA II

스펙트라 II

사운드 설치

2008.10.8-2009.2.5

백남준아트센터 2층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공간, 시간, 사운드와 관련한 인간의 지각에 대해 탐구하는 료지 이케다는 미래의 멀티미디어 환경과 문화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보이는 아티스트이다. 사운드와 건축 사이의 교차점에 있는 작품인 스펙트라 II는 빛과 사운드가 어떻게 물질성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그의 고찰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좁고 천장이 덮여 있는 복도 안에 한 명의 관람객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한 설치물이며, 관람객은 복도를 걸어가면서 천장으로부터 강한 빛과 사운드를 체험하게 된다. 설치물 안에서 관람객은 강력한 빛 때문에 공간의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없으며, 신체적 개입에 따라 변형되는 사운드의 진동과 음색을 느끼게 된다.

Spectra II

Sound Installation

8 Oct 2008-5 Feb 2009

NJP Art Center 2F

Ryoji Ikeda envisions multimedia environments and the culture of the future with mathematical precisions into how space, time and sound are perceived. His work Spectra II combines sound art and architecture, exploring how light and sound gain corporeity. This inquiry into the human senses consists of an installation with a narrow corridor underneath a covered ceiling where only one person can go through at a time. Walking through that corridor, a person is bombarded by blinding light and intensive sound. One cannot estimate the size of the space and becomes disoriented but feels the changes in sound and vibrations as they move through the installation.



Photo © Hugo Glendinning

**FORCED
ENTERTAINMENT**

QUIZOOLA!

퀴즐라!

공연

10.18, 3-9pm

백남준아트센터 지하

작가와의 대화

10.19, 3pm

백남준아트센터 1층 세미나실

가디언지로부터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실험극단”이라는 찬사를 들은 바 있는 포스트 엔터테인먼트는, 1984년에 결성되어 연극, 퍼포먼스, 라이브 아트, 비디오,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작업하고 있다. 이들의 퍼포먼스는 여러 다른 장르들로부터 가져온 요소들의 각기 다른 층위들을 결합시키고 충돌시키는데, 마치 콜라주와도 같은 구조를 지닌다. 실제세계와 공연 사이의 관계, 언어를 통한 확실성의 획득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업인 퀴즐라!는 어설픈 광대 분장을 한 세 명의 퍼포머가 미리 준비된 2000개의 질문을 6시간 동안 주고받는 퍼포먼스이다. 주어진 대본 외에, 질문에 대한 답이나 기타 상황은 즉흥적으로 진행되며, 관객은 자유로이 입장하고 떠날 수 있다.

대본: 팀 이첼 / 공연: 캐시 나덴, 제리 킬릭, 리처드 로든

Quizoola!

Performance

18 Oct, 3-9pm

NJP Art Center B1

Artist Talk

19 Oct, 3pm

NJP Art Center 1F seminar room

Founded in 1984, Forced Entertainment, acclaimed by The Guardian as ‘one of Britain’s greatest theatre companies’, has been experimenting with performance, live art, video, and digital cameras, among others. The group juxtaposes elements from other genres, dismembers them, and combines them like a collage. Quizoola!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reality and performance, how one tries to get hold of certainty through language while three clowns ask and answer two thousand prepared questions for six hours. Outside the given script,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and to the situations that come up are handled by improvisation and the audience is free to enter or exit as they please.

Script: Tim Etchells / Performance: Cathy Naden, Jerry Killick and Richard Lowdon



Photo © Luc Schaltin



Photo © Remi Librecht

KRIS VERDOMINCK



DUET



INI



BOX

크리스 베르동

듀엣 퍼포먼스

10.8-10.11, 2:30pm / 6:30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극장

예약 필수

인 설치

10.8-10.11, 2pm / 6pm

백남준아트센터 지하 1층

예약 필수

박스 설치

2008.10.8-2009.2.5

(개관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입장)

백남준아트센터 1층

크리스 베르동의 작업은 연극과 미술, 설치와 퍼포먼스, 춤과 건축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박스**는 작은 공간 안에 담을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빛을 담고 있는 유리 상자로, 관객들이 빛을 바라보는 동안, 세계 종말적인 내용을 담은 하이너 뮐러의 텍스트가 들린다. **듀엣**은 크레인으로 공중에 매달려 천천히 회전하는 두 댄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기계의 회전과 중력의 작용은 서로에게 밀착되어 있는 두 댄서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인**은 물 안에 완전히 잠긴 채 최면 상태에 빠진 퍼포머를 보여주는 설치-퍼포먼스로서 관객은 살아 있는 동시에 박제된 퍼포머의 증폭된 숨소리와 심장박동을 통해 신체에서 발산되는 사운드 스케이프를 느끼게 된다.

Kris Verdonck

Duet Performance

8-11 Oct, 2:30pm / 6:30pm

NJP Art Center 2F Theater

Reservation
Required**In** Installation

8-11 Oct, 2pm / 6pm

NJP Art Center B1

Reservation
Required**Box** Installation

8 Oct 2008-5 Feb 2009

(Entrance at every 30 minute)

NJP Art Center 1F

Kris Verdonck's work is located on the border between theatre and art, between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between dance and architecture. **Box** is a glass box that contains powerful light. While the audience is looking at the light, they hear Heiner Müller's text about the end of the world. In **Duet**, two dancers are suspended in the air by a crane which spins them slowly. The spinning of the machine and the force of gravity constantly change the movement of the two dancers who cling tightly to each other. **In** is an installation-performance where a performer is completely immersed in water and becomes hypnotized. His heart beat and the sound of his breathing are amplified so that they are audible to the audience. Thus, the audience feels the soundscape emanating from the body of the performer who is both alive and fossilized.



Photo © Marion Rossi

WILLIAM FORSYTHE

CITY OF ABSTRACTS

추상적 도시

인터랙티브 비디오 설치

2008.10.8-2009.2.5

백남준아트센터 2층

윌리엄 포사이스는 전통적 발레의 동작을 역동적인 예술의 형태로 변화시킨 안무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그의 작업은 현재의 예술 동향에서 가장 중점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작업의 범위도 퍼포먼스와 비주얼 아트, 건축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아우른다. 인터랙션 비디오 설치인 추상적 도시는 대형 스크린 옆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관람객과 그 주변의 풍경이 녹화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달되면 실시간으로 다시 변형된 이미지로 바뀌어 스크린에 투사되는 작업이다.

City of Abstracts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8 Oct 2008-5 Feb 2009

NJP Art Center 2F

William Forsythe is famous for his choreography, which transforms traditional ballet movement into a dynamic artistic form. His work deals with the most critical issues in current trends of art and ranges from performance, visual art, architecture to multi-media. In City of Abstracts, which is an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the video camera, installed next to a large screen, tapes the audience and the nearby landscape and transfers the images onto a computer program. This in turn alters the images and projects them on the screen in real-time.



**HWAYEON NAM
& YOUNGGYU JANG**

12.20, 6pm

12.21, 3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극장

예약 필수

독특한 텍스트와 상황의 배치로 주목 받고 있는 작가 남화연이 쓴 글을 음악가 장영규가 음악적으로 조합하고 가공하는 작업이다. 남화연은 다성의 텍스트를 쓴다. 대여섯 명의 화자는 각각의 텍스트를 들고, 이를 일정하지 않은 높이와 속도로 읽어 나간다. 그들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며, 말하는 순서 또한 일정하지 않다. 이 목소리들은 어느 지점에서 교차하거나 적층되면서, 청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저 어떤 소리-이상한 음악, 소음 혹은 언어의 부스러기로 인지된다.

20 Dec, 6pm

21 Dec, 3pm

NJP Art Center 2F Theater

Reservation
Required

Hwayeon Nam writes polyphonic texts – several speakers read their own lines in different tones and speeds. They seem to be in conversation with each other about a specific incident but the audience can't make out what is being said because it is out of sequence, mixed with layers of juxtaposed words, tones, noise and music, and is only understood as fragments of language. For this project, Nam writes the text then musician Younggyu Jang translates and fabricates it into musical notes.



DORA GARCIA

**M*A*S*H
(A KOREAN-BRECHTIAN
VERSION)**

매*쉬 (한국판, 브레히트적 버전)

예약 필수

퍼포먼스

11.15, 22, 29, 6pm

11.16, 23, 30, 3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극장

도라 가르시아는 예술가와 작품, 그리고 관람자 간의 전통적 관계를 변경시키는 상황을 창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공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살피고, 그 공간 안에 벌어지는 시스템에 들어가 기존 코드를 변화 시키는 작업을 글, 비디오 또는 퍼포먼스 등으로 보여준다. 한국에서 제작할 신작은 한국전을 배경으로 한 블랙 코미디인 로버트 알트만의 영화 매*쉬를 재구성한 연극 매*쉬 (한국판, 브레히트적 버전)이다. 영화의 주요 인물들을 차용하여 작가가 새로 쓴 각본에 따라 연출가 윤한솔이 한국 배우들과 함께 극을 구성한다.

**M*A*S*H
(A Korean-Brechtian Version)**Reservation
Required

Performance

15, 22, 29 Nov, 6pm

16, 23, 30 Nov, 3pm

NJP Art Center 2F Theater

Dora Garcia is interested in creating a situation in which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an artist, the work and the audience is transformed. Her writing, her video work and her performance alters pre-existing codes as she examines the relationship people establish in public spaces, and interrupts the very system that constructs these spaces. Her new theatre production, M*A*S*H (A Korean-Brechtian Version) is a re-construction of the film M*A*S*H, directed by Robert Altman and originally a black comedy set in the Korean War. Taking the main characters from the original film, she created a new script, which was then staged with Korean actors under the direction of Hansol Yoon.

Photo © Christophe Raynaud



ROMEO CASTELLUCCI [SOCIETAS RAFFAELLO SANZIO]

PARADISO

로메오 카스텔루치
[소시에타 라파엘로 산치오]

천국

설치-퍼포먼스

2008.10.8-2009.2.5

12-4pm / 5-9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로메오 카스텔루치는 1981년 소시에타 라파엘로 산치오를 설립하였다. 연극 또는 미술 등 단순히 장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의 작업은 개념적 해석이나 서사보다, 몸의 에너지, 물질성, 사운드, 비주얼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감각의 각성을 통한 의미의 현시를 만드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그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의 주빈 아티스트로 초청되어,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은 세 개의 작품 천국, 지옥, 연옥을 제작하였다. 그 중 천국은 백남준아트센터가 공동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아비뇽 페스티벌 이후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세계 초연된다. 이 작업은 마주할 수 없는 강력한 빛 아래 놓인 탄화된 신체를 통해 천국의 이미지를 실연한다.

Romeo Castellucci
[Societas Raffaello Sanzio]

Paradiso

Installation-Performance

8 Oct 2008-5 Feb 2009

12-4pm / 5-9pm

NJP Art Center 2F

Romeo Castellucci established Societas Raffaello Sanzio in 1981. His work, not easily categorized as theatre or visual art, focuses more on the manifestation of meaning by the awakening of the sens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body energy, materiality, sound and visual elements rather than on conceptual interpretation or narrativity. In 2008, he was an associate artist at the Avignon Festival in France and produced Paradiso, Inferno and Purgatorio inspired by Dante's Divine Comedy. Paradiso was co-produced by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will have its world premiere, after the Avignon Festival,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Paradiso is the staging of an image of heaven as carbonized bodies under powerful blinding lights.



TOSHIKI OKADA

5 DAYS IN MARCH

3월의 5일

예약 필수

퍼포먼스

12.13, 6pm

12.14, 3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극장

도시키 오카다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며 영어의 셸피시(Selfish)의 유아적 발음인 첼피치(Chelfitsch)라는 이름의 극단을 설립했다. 이 이름은 오늘날 일본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드러낸다. 오카다는 특히 비속어나 의미 없는 몸 동작의 반복 등 그만의 독특한 연극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전후 5일 동안의 도쿄의 젊은 커플들의 모습을 그린 3월의 5일에서 그는 분절적 언어와 일상 동작을 과장한 듯한 독특한 몸짓으로 연극적 대화의 방식에 질문을 던진다. 명확한 플롯이나 눈에 띄는 사건이 없는 이 작업은 담담하게 오늘날 젊은 세대의 현재적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5 Days in MarchReservation
Required

Performance

13 Dec, 6pm

14 Dec, 3pm

NJP Art Center 2F Theater

Toshiki Okada, playwright and director, established the theatre company Chelfitsch, a child-like pronunciation of the English word, Selfish. This name reveals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resent day Japan. Okada is known for his theatrical usage of slang and repetitive meaningless gestures. 5 Days in March, portraying the lives of young couples in Tokyo during the five days before and after the US attack on Iraq in March 2003, questions the mechanics of theatrical dialogue using fragmented language and exaggerated gestures. Without an apparent plot or any specific incident, 5 Days in March shows the contemporary expressions of the young generation today.



Photo © Sheila Burnett

47

**ANNIE VIGIER
& FRANCK APERTET
[LES GENS
D'UTERPAIN]**

X — EVENT 2

X-이벤트 2

퍼포먼스

10.8-10.11

백남준아트센터 2층

아니 비지에와 프랑크 아페르테는 레 장 뒤테르팡이라는 이름의 댄스 컴퍼니를 설립하여 연출가와 관객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 작업을 발표해왔다. 작업은 특히 전시라는 틀에서, 건축적인 공간의 문맥 내에서 수행된다. 이들은 2005년 이후 X-이벤트라는 제목의 프로토콜 시리즈를 제작해왔다. 이는 작업이 진행될 사이트의 특정 성격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춤과 시각예술 사이의 지점에서, 기존 공간의 관습, 관객과 퍼포머의 관계, 퍼포먼스의 시간 및 지속성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 백남준페스티벌에서는, 루브르 미술관, 베를린 비엔날레, 리옹 비엔날레 등에서 선보였던 X-이벤트 2 시리즈의 프로토콜을 소개한다.

X-Event 2

Performance

8-11 Oct

NJP Art Center 2F

Annie Vigier and Franck Apertet, founders of Les gens d'Uterpan develop works which challenge the conventions that define the live arts. Since 2005, the two artists have created and performed their protocol series called X-Event. Constructed in reaction to the specific site, the frameworks of exhibition and the audience, the performances challenge the frontiers between performing and visual arts. The Nam June Paik Festival presents X-Event 2, recently presented at the 5th Biennale of contemporary arts in Berlin, the Louvre National Museum in Paris, the Tate Modern in London and the Lyon Biennale of contemporary arts 2007.



HYOUNGMIN KIM

**PLAY. SHE LEFT AND IT
WAS A VACANT LOT**

플레이

퍼포먼스

10.22-24, 3pm / 6pm

10.25-26, 3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극장

예약 필수

김형민은 베를린 사우뷔네 극장의 협력 안무가인 콘스탄자 마크라스의 컴파니 도키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무용수이자,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개인 작업을 소개하고 있는 안무가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그녀는 기존의 전작을 재구성한 짧은 솔로 플레이를 선보인다. 4미터 길이의 장대를 도구로 하여 소통과 파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한편 작가가 생활하는 베를린의 건축 구조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Play. She Left and It was a Vacant Lot

Performance

22-24 Oct, 3pm / 6pm

25-26 Oct, 3pm

NJP Art Center 2F Theater

Reservation
Required

Hyoungmin Kim is a young dancer, who works at Dorkypark, a company established by Constanza Macras, a collaborative choreographer at the Schaubühne Theater in Germany. Kim herself is also an active choreographer whose stage is mostly in Europe. For this festival, she presents Play. She Left and It was a Vacant Lot, a solo piece and short reconstruction of her previous work. In this performance, she expresses images of communication and destruction using a four-meter-long pole. The piece is also her interpretation of the architectural structure of Berlin where she lives.



RIMINI PROTOKOLL [HELGARD HAUG / STEFAN KAEGI / DANIEL WETZEL]

**CALL CUTTA
IN A BOX**

[헬가르드 하우크 / 스테판 카에기 /

다니엘 베첼]

콜 커타

설치

10월:

8, 9, 11, 12, 15-19, 22-26, 29, 31

11월:

1, 2, 5-9, 12, 14-16, 19-23, 26-30

6-10pm

(1시간 간격으로 2인씩 입장)

백남준아트센터 2층

예약 필수

스테판 카에기와 헬가르드 하우크, 다니엘 베첼로 구성된 연극단체인 리미니 프로토콜은 비-연극적인 공간들에서 논픽션을 소재로 하는 작업을 만들어 왔다. 이번 페스티벌에 초대된 작품인 콜 커타에서, 관람객들은 극장에 들어가는 대신 어떤 방 안으로 초대된다. 방으로 들어가면 전화가 울리고, 관람객은 인도의 캘커타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 작업은 서구 서비스 산업 시스템의 형태를 예술영역으로 풍자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Helgard Haug / Stefan Kaegi /
Daniel Wetzel]**Call Cutta in a Box**

Installation

8, 9, 11, 12, 15-19, 22-26, 29, 31
October1, 2, 5-9, 12, 14-16, 19-23, 26-30
November

6-10pm

(Entrance at every hour)

NJP Art Center 2F

Reservation
Required

Rimini Protokoll, the members of which are Stefan Kaegi, Helgard Haug and Daniel Wetzel creates, at times, non-fiction works in non-theatrical spaces. Call Cutta in a Box invites the audience into a room instead of a theatre. When they enter this room, a phone rings and they hear a voice from Calcutta, India. Call Cutta in a Box artistically satirizes the systems subjacent to the West's service industry.



Photo © Olivier Charlot

CLAUDIA TRIOZZI

PARK

**FAIS UNE HALTE
CHEZ
ANTONELLA**

공원

예약 필수

퍼포먼스

10.25- 10.26, 1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안토넬라의 집에서 잠시 휴식

예약 필수

퍼포먼스

10.25- 10.26, 6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극장

클라우디아 트리오치는 잡다한 오브제들과
가재도구들을 모아 복합적인 기구로 만든 후 이를
통해 안무와 극을 결합하는 독특한 형식의 개인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묘한 이미지의
연속이지만, 그 이면에는 몸의 정치적 역사와 사회적인
연대기를 담고 있다. 공원은 설치와 안무의 접합을
보여주는 그녀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로, 관객이 한
여성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일상의 여러 장면들을
들여다보게끔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그녀는 다양한
텍스트의 분절된 음소를 이용한 힘있는 사운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안토넬라의 집에서 잠시
휴식은 대중 가요의 가사와 다양한 텍스트 파편을
이용한 콘서트 형식의 즉흥 퍼포먼스로 뮤지션 하코와의
공동 작업이다.

ParkReservation
Required

Performance

25-26 Oct, 1pm

NJP Art Center 2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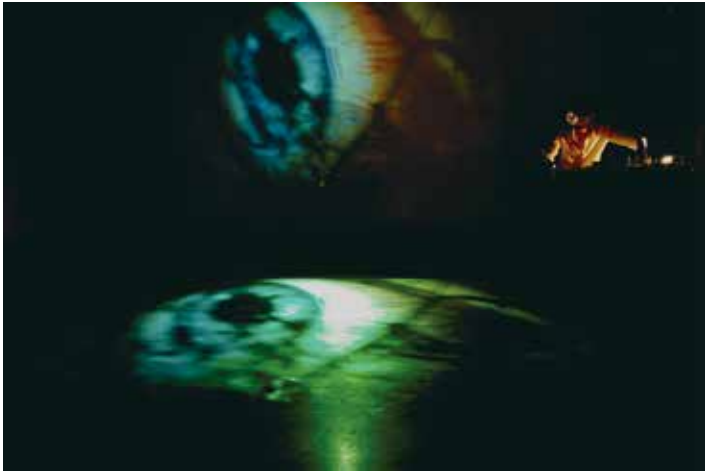
Fais une halte chez antonellaReservation
Required

Performance

25-26 Oct, 6pm

NJP Art Center 2F Theater

Claudia Triozzi presents a very unique work that
combines dance and drama with a complex
machine she made from various objects and
materials. On the surface, it looks like a series
of grotesque images, but it is actually a political
history and a social chronology of the body. Park
is representative of her work, demonstrating
a possible combination of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where the audience follows
a woman and peeps into various scenes of
her everyday life. Recently, Triozzi has been
presenting a sound performance using various
texts and fragmented images. Fais une halte chez
Antonella, a collaboration with musician Haco is
an improvisational performance using lyrics from
popular songs and scraps of various texts in a
concert form.



BYUNGJUN KWON

HYPERMETROPIA

하이퍼메트로피아

예약 필수

퍼포먼스

10.18, 7pm

10.19, 5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극장

권병준은 90년대 초반 싱어송라이터로 음악을 시작하여 얼터너티브 록에서부터 미니멀 하우스를 포괄하는 7개의 앨범을 발표하는 동시에 사운드 트랙, 패션 쇼, 현대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장치들과 퍼포먼스 툴을 이용한 작업들을 선보여 왔다. 백남준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하이퍼메트로피아는 카메라와 프로젝션을 이용하여 소리가 빛과 색으로 전이되는 사운드 퍼포먼스이다. 하이퍼메트로피아는 작가의 눈과 손에 쥐 펜의 사이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공간, 눈길 속의 초점을 맞출 수 없기에 모호하고 불안한 장소를 설명한다. 펜의 움직임은 공간과 의미를 흔들고 그 흔들림에 의해 만들어진 '하이퍼메트로피아' 안으로 들어간다.

[하이퍼메트로피아(원시)는 눈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가까운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시력 장애를 말한다.

— 위키피디아]

HypermetropiaReservation
Required

Performance

18 Oct, 7pm

19 Oct, 5pm

NJP Art Center 2F Theater

Byungjun Kwon began his musical career as a singer-song writer in the early 90s. He has released 7 albums to date ranging from alternative rock to minimal house, has contributed to movie soundtracks, fashion shows, modern dance performances. His work, Hypermetropia is an audio-visual performance piece involving a camera and a projection translating sound to color and light. Hypermetropia defines the uncertain space that the artist sees when shifting focus from eye to eye as he looks at a pen. In this way, the movement of the pen oscillates space and meaning causing one to enter into 'Hypermetropia'.

[Hypermetropia, also known as Hyperopia or colloquially as farsightedness or longsightedness, is a defect of vision caused by an imperfection in the eye (often when the eyeball is too short or when the lens is not round enough), causing inability to focus on nearby objects. — Wikipedia]



Photo © Ben Geraerts



GUIDO VAN DER WERVE

NUMMER NEGEN,
THE DAY I DIDN'T TURN
WITH THE WORLD

넘버 나인, 내가 지구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던 날

비디오 설치

2008.10.8-2009.2.5

백남준아트센터 2층

하위도 판 더르 베르버의 필름 퍼포먼스 속에는 비밀상적 감각, 상상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순간들이 있다. 오랫동안 피아노를 공부했던 작가는 음악에서 가능한 직접적 표현이 미술에서의 시각적, 개념적인 언어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기를 바라며, 35mm 카메라를 이용한 일련의 숫자를 붙인 퍼포먼스-영상 작업을 제작해왔다. 넘버 나인, 내가 지구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던 날에서 작가는 북극의 정확한 지축에 서서 24시간 동안 지구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돈다. 6초에 한 번씩 촬영이 되어 총 9분으로 만들어진 이 비디오의 배경에 나오는 솔로 피아노 곡은 작가가 직접 작곡하였다.

Nummer Negen, the Day I Didn't Turn With the World

Video Installation

8 Oct 2008-5 Feb 2009

NJP Art Center 2F

In Guido van der Werve's film performances, there are moments where extraordinary senses and imaginary scenarios come to life. The artist who studied piano for several years tries to convey the directness of music through visual and conceptual languages that create numbered performance-video installations using a 35mm camera. Nummer Negen, the Day I Didn't Turn With the World was created when the artist visited the North Pole and stood exactly on the axis for 24 hours turn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earth's rotation. Photos were taken every 6 seconds to create a 9 minute video. The accompanying solo piano piece was also composed by the artist.



Photo © S. Aubry

VINCENT DUPONT

**HAUT CRIS
(MINIATURE)**

외침(미니어처)

퍼포먼스

11.1, 6pm

11.2, 3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극장

뱅상 뒤퐁은 영화, 연극,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와 사운드 그리고 그가 무대에서 생산하는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는 현대 공연 예술의 장에서 그의 위치를 더욱 특별하게 해주고 있다. 외침(미니어처)은 종교 전쟁 시대의 공포를 드러내는 16세기 아그리파 도비네의 텍스트에서 시작하였다. 현대 사회의 억압된 신체는 소리 내어 분노하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작가는 비좁은 공간 안에서 낮은 소리를 내며 미세한 움직임이 지속하고, 그의 느린 동작에서 나오는 소리와 작은 한숨 소리는 점차 확장되어 울음과 외침으로 발산된다.

Haut Cris(miniature)

Performance

1 Nov, 6pm

2 Nov, 3pm

NJP Art Center 2F Theater

Vincent Dupont's work covers various genres including film, theatre and performance. The importance of texts and sounds in his work, and the visual images he creates on stage make his position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performance art unique. Haut Cris(miniature) began from the texts of Agrippa d'Aubigné in the 16th Century that addressed the fears of religious war prevalent at the time. The artist says that the body in modern society has been repressed and has thus forgotten how to rage. With sound and subtle movements, the artist moans in a narrow space. The sound and soft sighs emanating with his slow movements gradually expand and explode into cries and screams.



ANTONIA BAEHR

LAUGH

웃음

워크숍

11.8, 3pm

공연

11.9, 3pm

백남준아트센터 2층 극장

예약 필수

안토니아 배어는 감독과 작가, 그리고 배우 등의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며 기존의 구조를 변형해가는 작업을 특징으로 한다. 배어는 2006년 프랑스 레 라보라투아 오베르빌리에에서 웃음 워크숍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역 주민 25명을 초대해, 3인의 웃음 전문가(요가 강사, 광대, 아티스트)를 통해 웃음에 관해 배우는 3일간의 세미나였다. 이 워크숍의 결과와 그간의 리서치를 통해 배어는 웃음이라는 극을 만들었다. 이는 웃음 그 자체에 대한 고찰로 조크, 표현, 서사, 유머, 기쁨, 사운드, 형태 등 웃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워크숍 1회와 공연 1회가 열린다.

Laugh

Workshop

8 Nov, 3pm

Performance

9 Nov, 3pm

NJP Art Center 2F Theater

Reservation
Required

The characteristic of Antonia Baehr's work is that she transforms the pre-existing structure as she shifts her role from director, to writer, to actor. In 2006 Baehr completed a project titled Laughter Workshop in Les Laboratoires d'Aubervilliers, France. Twenty five local people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 three day workshop to learn about how to laugh well from three laughter experts (a yoga teacher, a clown, and an artist). The result of this workshop and her research are dramatized in Laugh. It explores what laughing is, covering various aspects of laughter: jokes, expressions, humor, joy, sound, forms and so forth.



Photo © Mario Del Curto

LA RIBOT



LAUGHING HOLE

래핑 홀

퍼포먼스

11.8, 2-8pm

백남준아트센터 지하 1층

마리아 리보는 라 리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컨템퍼러리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작업들을 해 왔다. 그녀는 무용의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한계를 라이브 아트와 퍼포먼스, 그리고 시각예술의 접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파리의 퐁피두 아트센터나 런던의 테이트모던과 같은 대형 미술전시장 외에도 갤러리와 극장, 댄스 페스티벌, 라이브아트와 퍼포먼스 페스티벌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래핑 홀은 네 명의 퍼포머가 600개의 단어장을 들고 6시간 동안 진행되는 퍼포먼스이다.

Laughing Hole

Performance

8 Nov, 2-8pm

NJP Art Center B1

Maria Ribot's work, developed under the name La Ribot, exists somewhere between contemporary dance, performance, and video art. Her work attempts to overcome the spatial and temporal limitation of dance at the intersection of live art, performance and visual art. She has presented her work at Centre Pompidou in Paris, Tate Modern in London and several dance, live art, and performance festivals, as well as at various galleries and theatres. In Laughing Hole, four performers perform for six hours with 600 flashcards, each with a word written on it.



BORIS CHARMATZ
[ASSOCIATION EDINA]

AATT ENEN TIONON

HÊÂTRE-ÉLÉVISION

아-타-앙-시-옹

퍼포먼스

10.8, 7pm

10.9, 7pm

백남준아트센터 후원

에아트르 엘레비지옹

설치

2008.10.8-2009.2.5

(개관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1인씩 입장)

신갈고등학교 체육관

예약 필수

보리스 샤르마츠는 급진적이며 제도 비판적인 안무를 보여왔다. 특히 그는 퍼포먼스의 실현에 있어서 비평적 가능성을 열고 예술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문맥을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타-앙-시-옹은 세 명의 댄서가 삼단으로 된 높은 구조물 위의 좁은 공간에서 아슬아슬한 퍼포먼스를 벌이는 동안 관객이 자유로이 그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극장 공간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퍼포먼스 에아트르 엘레비지옹은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두운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설치-퍼포먼스이다.

Aatt enen tionon

Performance

8 Oct, 7pm

9 Oct, 7pm

NJP Art Center Backyard

Héâtre - élévision

Installation

8 Oct 2008-5 Feb 2009

(Entrance at every hour)

Shingal High School Gymnasium

Reservation
Required

Boris Charmatz's choreography has been radical in criticizing institutional systems. He has endeavored to formulate various methods and context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art acting as social critique, and to enable artistic experiments. In Aatt enen tionon, three dancers perform on a narrow space built onto a three level structure. The audience is free to move around. Héâtre - élévision is an installation-performance, which happens in a dark space where only one person can enter, questioning the very concept of a theatre space.



PETER WELZ

**RETRANSLATION
OF FRANCIS BACON'S
UNFINISHED
SELF PORTRAIT**

프랜시스 베이컨의 미완성 자화상에 대한 재해석

영상 설치

2008.10.8-2009.2.5

백남준아트센터 2층

페터 벨츠는 비디오를 작업의 완성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형태에 대한 근본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작업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미완성 자화상에 드러나는 동선을 윌리엄 포사이스가 춤으로 따라간 것을 각기 다른 세 앵글에서 촬영한 비디오 설치이다. 베이컨의 자화상은 그것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선들로 표현하여 정지된 장르인 회화에 시간성을 부여하였고 포사이스는 이를 다시 신체의 움직임으로 치환했다. 그리고 이 시간적 과정이 페터 벨츠에 의해 다시 영상으로 기록된다. 이 작업은 2006년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Retranslation of Francis Bacon's Unfinished Self Portrait

Video Installation

8 Oct 2008-5 Feb 2009

NJP Art Center 2F

Peter Welz does not consider video a complete form of artwork but rather a medium enabling a fundamental examination of human form. Retranslation of Francis Bacon's Unfinished Self Portrait is a video installation. William Forsythe dancing on the lines drawn in Francis Bacon's unfinished self-portrait is filmed from three different angles. In Bacon's drawings, the lines that emerge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portrait are expressed. Forsythe takes these lines and translates them into body movements. This process is videotaped by Peter Welz.



DONGHEE KOO

INVISIBLE MAN
(WORKING TITLE)

투명인간 (가제)

영상

일시·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이 작품은 실험극 형식의 비디오 영상작품이며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투명인간' 혹은 비가시적 존재의
 신념으로 인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투명인간 이미지들에
 대한 문학적 형식과 비디오가 가진 시간성 안에서 서로
 상반되는 텍스트의 구조적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다.

Invisible Man (working title)

Video

Time & place to be announced
on the website

This work is a video piece whose format is
 borrowed from experimental theater. The artist
 explores the notion of time in reference to different
 conceptualizations of an 'invisible man' or being
 in literary and video representations. It is the
 temporality of both mediums that is contrasted and
 highlighted.



Photo © FRAC Lorraine



GUILLAUME DÉSANGES

HISTORY OF PERFORMANCE IN 20 MINS

CHILD'S PLAY

20분 만에 듣는 퍼포먼스의 역사

강연-퍼포먼스

10.18, 6pm

10.19, 3pm

백남준아트센터 1층 세미나실

아이들 놀이

설치

2008.10.8-2009.2.5

백남준아트센터 1층

20분 만에 듣는 퍼포먼스의 역사는 큐레이터이자 비평가인 기욤 데장주의 강연-퍼포먼스이다. 그가 등장, 수용, 망설이기, 도망치기, 목표 설정, 추락, 울부짖기, 물어뜯기, 자신을 비워내기, 사라지기 등 10개의 제스처를 통해 퍼포먼스의 역사를 설명하는 동안 배우가 옆에서 소개되는 제스처를 재연한다. 이를 통해 그는 퍼포먼스를 미술사 속의 연대기가 아닌 제스처의 역사로 풀어낸다. 이 강연의 연장선에서 기욤 데장주가 제안하는 또 다른 작업은 아이들 놀이이다. 이는 루마니아의 8세 아동들과 진행한 퍼포먼스 워크숍의 결과물을 모은 전시로 마리나 아브라모빅, 요셉 보이스 등 미술사의 주요 퍼포먼스의 장면들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재연하고 있다.

History of Performance in 20 mns

Lecture-Performance

18 Oct, 6pm

19 Oct, 3pm

NJP Art Center 1F seminar room

Child's Play

Installation

8 Oct 2008-5 Feb 2009

NJP Art Center 1F

History of Performance in 20 mns is a lecture-performance by Guillaume Désanges, a curator and critic. While he lectures on the history of performance using ten gestures (appearing, receiving, holding back, escaping, aiming, falling, crying, biting, emptying oneself, and disappearing), an actor next to him performs the gestures. Through this, he suggests performance not as a chronology in art history but as a history of gestures. In parallel to this lecture is another work by Guillaume Désanges: Child's Play, an exhibition of the result of a performance workshop conducted with 8-year-olds in Romania. It presents reproductions of major scenes from the historical performances of Marina Abramovic, Joseph Beuys and others, seen through the eyes of children.

2008.10.8-2009.2.5

백남준 아트센터

신갈고등학교 체육관

지앤 아트 스페이스

관람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

관람료

초등학생:

3,000원 (단체 2,000원)

중고등학생:

5,000원 (단체 3,000원)

일반:

7,000원 (단체 5,000원)

‘일반’은 대학생을 포함하여 19세

이상 성인을 의미합니다.

단체는 20명부터입니다.

예약 필수

‘예약 필수’라고 표시된 공연은
관람객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약을 권장합니다. 이메일로 예약
하시거나, 공연 당일 매표소에서 예약
번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예약의 경우 공연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셔서 예약 번호를 받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취소됩니다. 예약 필수인
공연도 추가 관람료는 없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원하시는 공연
제목과 날짜, 시간과 함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reservation@njpartcenter.kr
전화예약 관련 정보는 추후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www.njpartcenter.kr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Oct 2008-5 Feb 2009

Nam June Paik Art Center

Shingal High School Gymnasium

ZIEN ART SPACE

Open Hours

Daily from 10am-10pm

Last admission: 8:30pm

Admiss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3,000 won (2,000 won for group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5,000 won (3,000 won for groups)

Adults:

7,000 won (5,000 won for groups)

‘Adults’ refers to people

19 years of age or older including

university students.

A group should consist of 20 or

more persons.

Reservation Required

Space for certain performance is
limited. We recommend making
reservations by e-mail or getting
a reservation ticket on the day of
the performance.

For reservations made by e-mail, it
is necessary to arrive 30 minutes
before the performance in order
to pick up the reservation number
without which you may not be
granted admittance.

All performances are free of
charge with the Festival ticket,
including those requiring
reservations.

Please e-mail your name
and contact info, the title of
the performance you wish
to attend and the date and
time for the performance to:
reservation@njpartcenter.kr
Information on making
reservations by phone will be
available at a later date at our
website:
www.njpartcenter.kr

The schedule may change.
Please consult the schedule
on the website before planning
your visit.

오시는 길

수원 IC 옆 신갈오거리에서
민속촌 방향 도보로 10분 거리,
경기도박물관 옆,
신갈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 버스: 서울 기준

신갈오거리(신갈파출소) 하차,

도보 3분

강남 (양재 경유)

5001, 5003

(좌석버스, 강남역 3번, 6번 출구)

잠실

5600 (직행좌석)

광화문·종로·중앙시네마·서울역 앞

5000, 5005 (직행좌석)

경기도박물관 앞 하차, 도보 10분

강남 (양재 경유)

1560, 5001-1

(좌석버스, 강남역 6번 출구)

잠실

1116 (일반버스, 잠실역 6번 출구)

여의도 (사당 경유)

7007-1 (좌석버스)

광화문 (분당 경유)

5500-1 (좌석버스)

논현역

9404

+ 버스: 분당 기준

경기도박물관 앞 하차, 도보 10분

미금역

5500-1 (좌석버스), 7007-1

(좌석버스), 1116 (시내버스), 30

(마을버스)

루터신학대 앞 하차, 도보 7분

푸른마을 - 이마트 - 하얀마을

9404

미금역

116-1

신갈초등학교 앞 하차, 도보 10분

오리역

116-3

신갈파출소 하차

영통

27-1번

Transportation

Nam June Paik Art Center is within 10 minutes walking distance in the direction of the Korean Folk Village from Shingal Five-way Crossing next to Suwon Interchange. It is next to GyeongGi Provincial Museum and across from the main gate of Shingal High School.

+ By Bus

Bus from Seoul to Shingal

Pachulso (Police Station),

3 min walk to NJP Art Center

At Gangnam Station (Exit no. 3)

5001, 5003 (seat bus)

At Jamsil

5600 (direct seat bus)

At Gwanghwamun, Jongno,

Juanguang Cinema, Seoul Station

5000, 5005 (direct seat bus)

Bus from Seoul to GyeongGi

Provincial Museum

At Gangnam Station (Exit no.6)

1560, 5001-1 (seat bus):

At Jamsil Station (Exit no.6)

1116

At Yeouido (through Sadang)

7007-1 (seat bus)

At Gwanghwamun (through

Bundang)

5500-1 (seat bus):

At Nonhyeon Station

9404

Bus from Bundang to GyeongGi

Provincial Museum

At Migeum Station

5500-1 (seat bus), 7007-1 (seat

bus), 1116 (intracity bus),

30 (local shuttle bus)

Bus from Bundang to

Luther University, 7 min walk to

NJP Art Center

At Pureun Maeul, E-Mart,

Hayan Maeul

9404

At Migeum Station

116-1

Bus from Bundang to Shingal

Elementary School, 10 min walk

to NJP Art Center

At Ori Station

116-3

Bus from Bundang to Shingal

Pachulso (Police Station)

At Yeongtong

27-1

+ By Car

After arriving at Suwon (Shingal)

Tollgate from Gyeongbu

Expressway, Yeongdong

Expressway, Shingal-Ansan

Expressway, turn right and drive

straight until you reach Shingal

Five-way Crossing. Turn right in

the direction of the Korean Folk

Village, and drive 1.5km.

Take Seoul-Osan National

Highway or Suwon-Yongin

National Highway to Shingal Five-

way Crossing and drive 1.5km in

the direction of the Korean Folk

Village.

From Bundang, drive in the

direction of Shingal, reach

Shingal Five-way Crossing and

drive 1.5km in the direction of the

Korean Folk Village.

+ 인천공항

공항에서 수원행 리무진 버스
(7A Gate) — 동수원 사거리 근처
호텔 캐슬 하차 후 길 건너편 우만
아파트 정류장에서 10번, 66번,
66-1번, 66-2번, 66-3번, 66-4번,
신갈 파출소 하차 / 10-5번 37번
경기도박물관 하차

+ 김포공항

공항에서 수원행 리무진 버스
(1 Gate) — 동수원 사거리 근처 호텔
캐슬 하차 후 길 건너편 우만아파트
정류장에서 10번, 66번, 66-1번, 66-
2번, 66-3번, 66-4번 신갈 파출소
하차 / 10-5번, 37번 경기도박물관
하차

+ 자가용 이용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

[수원(신갈)틀게이트] — 우회전 —

[신갈오거리] — 우회전: 한국민속촌
방향 1.5km

————

[서울-오산간 국도 / 수원-용인간
국도] — [신갈오거리] — 한국민속촌
방향 1.5km

————

[분당] — 신갈방면 — [신갈오거리]

— 한국민속촌 방향 1.5km

주차안내

무료
백남준아트센터 상설 주차장 63대
뮤지엄파크 임시주차장 107대

————

미술관 내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미술품 운반 및 업무용 차량 이외의
일반 관람 차량은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By Plane: From Gimpo Airport

Via Suwon to the Center

Take the limousine bus to Suwon
at Gate 1. Get off at Hotel Castle
near Dongsuwon Crossroads and
take 10, 66, 66-1, 66-2, 66-3, or
66-4 bus at the Uman Apartment
Bus Stop across the street. Then
get off at Shingal Pachulso(Police
Station). Or take 10-5 or 37 bus
at the Uman Apartment Bus
Stop and get off at GyeongGi
Provincial Museum.

Via Seoul to the Center

Via Gangnam
Take 642 to Gangnam Staion at
Gate 1 and get off at Gangnam
Staion. From Gangnam station's
exit 3 or 6, take 1560, 5001-1 to
Shingal. Then get off at GyeongGi
Provincial Museum. Or from
Gangnam station's exit 3 or 6,
take 5001 to Shingal. Then get
off at Shingal Pachulso(Police
Station).

Parking Information

Parking at NJP Art Center is free
of charge. There are 63 parking
spaces at the permanent parking
lot of NJP Art Center and 107
parking spaces at the temporary
parking lot of the Museum Park.

————

We recommend you to utilize
public transportation due to
limited parking.

+ By Plane: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Via Suwon to the Center

Take the limousine bus to
Suwon at Gate 7A. Get off at
Hotel Castle near Dongsuwon
Crossroads and take 10, 66,
66-1, 66-2, 66-3, or 66-4 bus at the
Uman Apartment Bus Stop across
the street. Then get off at Shingal
Pachulso(Police Station). Or
take 10-5 or 37 bus at the Uman
Apartment Bus Stop and get off at
GyeongGi Provincial Museum.

Via Seoul to the Center

Via Gangnam
Take 609 to Gangnam Staion at
Gate 5A or 11B and get off at
Gangnam Staion. Take 5001 or
5003 at Exit No. 3 and get off at
Shingal Pachulso(Police Staion).

Via Hannamdong

Take the limousine bus to
Hannamdong at Gate 5A or 11B.
Get off at Hannamdong and take
5000 or 5005. Get off at Shingal
Pachulso(Police Station).

Via Jamsil

Take 6000 to Jamsil. Get off at
Jamsil station. Take 5600 and get
off at Shingal Pachulso(Police
Station).

주최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용인시

주관

백남준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발행

백남준아트센터

디자인

슬기와 민

Host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City

Organized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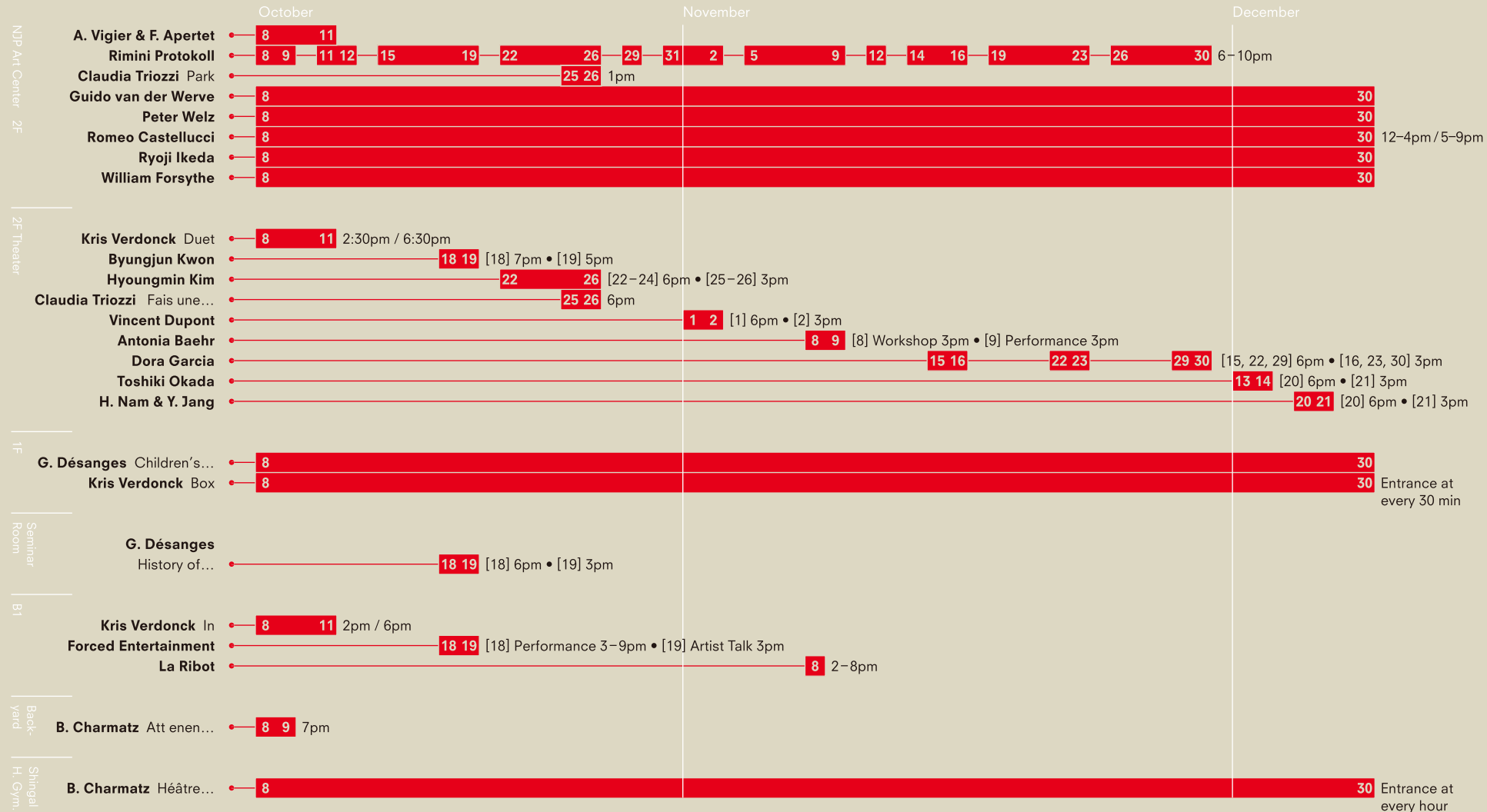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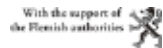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Nam June Paik Festival

Published by

Nam June Paik Art Center

Designed by

Sulki and Min



12-4pm / 5-9pm

Entrance at every 30 min

Entrance at every hour

